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GMI 선교사 훈련원 미주훈련 시작(7/8~9/28 파송식)
 - 그룹장 모임(7/8 8:00pm)
 - 2025 성경통독 및 퀴즈대회(8/30 단체 및 개인전 필기 시험, 8/31 개인전)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5. 7. 6

7월 첫 켜 주: 형통의 위험을 극복하는 신앙 (신명기 17:16-20)

■ Welcome

큰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혹은 계획한 것이 성공한 이야기 등을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신명기 17:16~20

16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 서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였다.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여디디아(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다. 서열상 왕이 될 가능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 천 번의 번제를 드려 주님께 감사한다. 이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혜를 그에게 주신다.

문제는 솔로몬이 그 형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며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타락하였다. 솔로몬을 보면, 고난의 때보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경계하고 실천해야 함을 보여준다.

■ 관찰 질문: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어떤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가?

해답 1.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16절)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솔로몬은 16절의 말씀을 어겼다. 그는 군대와 병거, 말의 수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제도를 더 신뢰하였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을 표현하였다. 다윗은 말년에 형통했지만, 타락하지 않았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8:4) “그 마병 일천 칠백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송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속적인 환경을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한 사람 곁에 있기를 힘쓰는 것이 곧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타락을 막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가운데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로 인해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 결과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 적용 질문 1

- 1)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늘 겸손히 행하는 좋은 예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해답 2. 세상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라(17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셨다. 다윗도 이 부분에 있어 완전하지 않았으나,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는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두었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에 들여왔다. 겉으로는 정략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은 왕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부와 영광을 주셨다. 솔로몬은 그 부를 자신을 위해 쌓았고, 자신의 궁전을 금으로 치장하였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관습과 가치를 따르고 타협한 결과였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에게도 많은 금은보화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역대상 18:11)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 적용 질문 2

- 1)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졌거나 승리하였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3.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하라(18~20절).

솔로몬의 통치 초기, 그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율법을 가까이하고,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고, 봉헌식에서는 온 백성 앞에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솔로몬은 인생의 초점을 쾌락에 두었다. 그가 최우선으로 추구한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다윗은 그와 전혀 다른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찾는데 기쁨을 두었다. 그가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었다.

(시편 1: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과 번영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바로 그 형통의 시간에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QT(Quiet Time)와 기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여야 한다.

❁ 적용 질문 3

- 1) 요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점수는? (1~10점)
- 2)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위해 좀 더 노력, 도전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해답 4.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라.

(열왕기상 11:9-10)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시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타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싸인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변의 성도를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싸인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경고가 들릴 때 즉시 돌이키라! 경고를 들을 때 순종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 적용 질문 4

- 1)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설교 말씀 혹은 묵상이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 2) 하나님의 말씀, 권고 혹은 경고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